

● 손보시장 개방에 따른 좌담회 참석

李大鎔이사는 지난 8월9일 오후 매일경제신문사가 주관한 손해보험시장 조기개방에 따른 대책에 관한 좌담회에 참석했다. 매일경제신문사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서李이사는 최근 손보업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보험시장 조기개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특수건물의 개방에 언급하면서 『특수건물의 개방은 국내 방재업무를 포기하고 각종의 위험을 방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보험 시장의 3.7%에 불과한 특수건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趙洪 손보험회장, 朴恩會 성균관대학교수, 孫京植 안국화재사장, 高順福 보험공사이사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 불조심 포스터·표어 및 수필·수기 입상자 시상식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조심의 생활화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협회가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불조심 포스터·표어 및 여성수필·수기 현상모집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8월26일 오후 6층회의실에서李大鎔이사장을 비롯한 전임원과 각 부서장 및 재무부 관계관, 소설가 朴婉緒씨, 수상자전원과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올해로 10번째 맞이하는 이 행사에는 표어부문에서 2천3백점, 포스타 303점, 수필수기 부문에서 73점 등이 각각 응모됐는데 포스타는 서울대학교 조영제교수가, 수필·수기부문은 여류소설가 박완서씨가 각각 심사를 맡았었다.

이번 현상모집에서 입선된 작품중 포스타·표어는 오는 11월 불조심 강조기간을 전후하여 전국에 인쇄 배포될 예정이며 수필 및 수기입선작은 여성잡지 여원과 정경문화등 월간지에 각각 게재된다.

● 새마을 평가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협회는 지난 9월5일부터 6일까지 이틀동안 새마을

중앙본부 강당에서 전국 36개 단체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85년도 전국 직장새마을운동 중앙비교평가 대회에 서울특별시 대표로 참가하여 1위인 우수상(자조상)을 수상했다. 보험업계로는 유일하게 참가하여 영예의 1위상을 수상함으로써 협회의 새마을운동이 이제 완전히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며 다른 직장의 모범이 되고 있음을 충분히 반증해 준 셈이다.

● 일선장병 및 양로원, 고아원 위문

협회는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절을 맞아 전방에서 불철주야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일선장병과 서울시 남현동소재 상록보육원 및 화곡동에 있는 천사종합복지원을 차례로 방문하고 이들을 위로·격려했다.

● 고층건물 종합소방훈련 실시

협회는 지난 6월15일 제1백58차 민방위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 영등포구청관계관을 비롯하여 협회 전임직원과 8개 입주사의 민방위 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층건물 종합소방훈련을 협회 사옥에서 실시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의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에 따른 이날 훈련에는 영등포 소방서등 7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했다.

● 기술직 신규직원 채용

협회는 지난 9월1일자로 화공 및 전기공학 기술직 16명을 공개채용 했다. 지난 7월14일 1백45명이 응시한 가운데 실시된 필기시험과 8월1일의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선발된 이들 신입직원들은 9월2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습교육을 이수한 후 현업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 입주사 친선 탁구대회 개최

협회는 지난 9월13일 협회사옥에 입주해 있는 남광토건, 요율산정회, 자동차조합, 산웅축전지, 공작기계, 농협등 7개기관 입주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친선 탁구대회를 가졌다.

●내무부 인사이동

내무부는 지난 7월1일자로 내무부 소방국 예방과장에 兪世億 부산소방본부 방호과장을, 인천소방본부장에 徐成錫 내무부 예방과장을, 부산소방본부방호과장에 李榮周 대전소방서장을 각각 전보 발령하였다.

●주요 국제행사대비 특별소방점검

서울특별시 소방본부는 주요국제행사인 IBRD/IMF 총회를 대비하여 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비롯하여 숙박시설인 힐튼, 롯데호텔등 특급관광호텔 14개소를 비롯하여 관련시설인 일반호텔 79개소와 시장, 백화점 172개소, 공연장 33개소등 총 520개소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지난 8월10일~8월31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일제히 실시했다.

이번 특별소방점검의 주요 착안사항은 내장재, 피난계단, 방화구획, 비상구등 방화시설의 적정여부 및 소방시설, 특히 자동소화설비등의 관리유지상태와 전기, 가스, 유류 및 화기취급의 안전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고층건물 소방점검

서울특별시 소방본부는 지난 7월25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화재 발생시 소방작전에 어려움이 따르는 시장, 백화점, 호텔, 병원, 학교, 관공서, 사업장등 11층이상의 고층건물 1천3백60개소중 다중집합고층건물 2백63개소에 대한 일제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소방본부 예방요원 112명 전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이번 점검은 자동소화설비의 작동상태 및 소방작전상의 장애요인 유무, 자위소방태세 및 방화관리상태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여름철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서울특별시 소방본부는 여름 방학기간동안 우려되는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람있고 즐거운 여름방학이 되도록 교육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구청, 경찰서, 소년단체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소방본부 산하 10개 소방서에 여름철 어린이 소방안전교실을 설치, 운영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교실은 각 소방서별 계획에 따라 국민학교 여름방학기간인 7월16일부터 8월24일까지 시내 405개 국민학교 및 유치원학생 1백20만7천3백77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 물놀이안전, 전염병예방, 유해식품 및 불량식품에 의한 식중독방지, 연탄가스중독 사고방지등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였다.

●북부소방서 청사증축 준공식

북부소방서(서장 朴泰攸)는 지난 7월12일 대회의실에서 이형우 서울소방본부장 및 각 소방서장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북부소방서 청사증축 준공식을 가졌다.

●방재설비설계 전문용역업체설립

소방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4개사의 방재설비설계 전문용역업체가 설립되었다. 85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이들 업체는 앞으로 시공되는 연면적 3만m²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소방설비 설계도면 검토를 하게 된다.

이들 업체는 과학기술처의 등록을 받은 업체로 소방기술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들 용역업체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상욱 방재기술연구소(소장 金相旭)
(동방빌딩 309호 전화 453-1119)
- 연합방재기술연구소(소장 羅采修)
(동화빌딩 1402호 전화 784-8033)
- 전로스프리벤션(소장 全弘宰)
(동우빌딩 503호 전화 922-8351)
- 한국방재연구소(소장 崔進)
(신동양빌딩 201호 전화 677-4499)

●보험단 최고경영자 세미나

보험업계 최고경영자 세미나가 한국보험공사 보험연수원 주최로 지난 19일 하오 충남 도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틀동안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영정보시스템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험산업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험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金滿堤재무부장관이 특별 초청되었으며 당협회李大鎔이사장 및 손해보업계 최고경영자등 30여명이 참가하였다.

●손해보험 특집좌담회 개최

대한손해보험협회(회장 趙洪)는 창립 제39주년을 맞아 지난 7월12일 당국 및 학계, 업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손해보험산업의 현안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특집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 전개

손해보험업계 정화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20일부터 고속도로 운행차량 승객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범국민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캠페인은 서울, 부산, 대구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오는 9월말까지 실시되는데 손보업계 임직원 7백50여명은 현장계도와 함께 마스크를 이용한 계몽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도 했다.

●손보협회 창립39주년 기념식 거행

대한손해보험협회(회장 趙洪)는 지난 8월1일 창립 제39주년을 맞이하여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외국보험사 국내영업 급신장

국내에서 손해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미국계 AHA사(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와 CIGNA사등 2개의 외국보험회사들은 지난 84회계년도중(84.4~85.3월)97

억9천9백만원의 보험료수입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30.8%가 신장된 이들 보험회사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한 영업실적을 51.1%나 신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보험회사들은 가계성보험에 치중하여 국내 영업을 발판을 다진 것으로 알려져 국내 보험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7월말까지의 보험료 수입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27.8%가 증가한 35억5천9백만원으로 국내 손보사의 보험료 수입증가율 17.8%에 비해 훨씬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안국화재 위험관리 좌담회 개최



안국화재해상보험(주) (사장 孫京植)는 지난 8월 22일 5층 회의실에서 「위험관리」지 창간4주년 기념으로 "위험관리의 저변확대와 미래"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고려대학교 申守植교수를 비롯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鄭大權 점점1부장등 관계자 6명이 참석, 위험관리의 나아갈 방향 및 저변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좌담회에서 申守植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위험관리는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국화재보험협회, 보험공사, 학회등 관련기관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며 위험관리의 저변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확보, 자금지원 연구소신설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